

지역 매 아리

완주군, 전문가 초빙

딸기재배 현장컨설팅 '호응'

완주군이 전문가를 초빙해 딸기재배 현장컨설팅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완주군은 딸기재배농가 50명을 대상으로 최근 '행복농업 이동상담 장터'를 운영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정부혁신 행복농업 이동상담 장터'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동상담에서는 딸기 재배와 관련한 작물재배, 토양과 비료, 병해충,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4개 분야로 각 전문가위원의 심도 있는 교육과 참석자간의 질의응답 및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딸기 재배농가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의 영향으로 병해충 증가와 이어지기에 의한 토양의 연작장애, PLS제도 시행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영농컨설팅은 농촌진흥청 고격직접담당관실과 협력해 딸기 주산단지의 연작피해 등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영농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는 효과도 거뒀다.

이규진 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담장은 "행복농업 이동상담 장터 참여를 통해 딸기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푸드플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착수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관내에서도 생산되는 농산물이 외부에서 조달되던 기존 먹거리 유통체계를 지역내 순환(로컬푸드·공공급식) 체계로 전환하는 종합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김제시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용역사로 지역농업네트워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용역사 선정을 위해 6월초 나라장터에 공고하였고, 제안서 평가를 위해 생산자, 소비자,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먹거리관련자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난 20일 정성평가를 통해 타 지자체 푸드플랜과 로컬푸드 관련 용역을 다수 수행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관내 먹거리 실태조사, 주민의견 조사 및 공청회, 민관 거버넌스 구축, 먹거리정책 분석 및 추진체계 확립, 김제시 푸드플랜 2030 비전 및 세부추진방안 수립 등 김제시 푸드플랜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위해 6월 안에 계약을 실시하고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짚은 인사발령 업무 효율성 떨어져"

김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서 지적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지난 21일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상민, 김복남, 이병철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질의를 나선 김복남 의원은 김제시장 취임시 인사정의 7.0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를 실시한다고 하였지만 현재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약 30여회에 이르는 짚은 인사발령으로 업무 지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향후 인사시 예측가능한 상·하반기 정기인사를 위주로 실시할 의향에 대해 질의하였고 공무원 진출은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진출 동의·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한 인력관리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서, 29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조직개편을 완료하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조직개편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친 조직개편 추진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김제시의

계획을 물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많은 논란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수변공원 산책로 용 조형물의 폐쇄 혹은 이전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했다.

오상민 의원은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지평선산업단지의 직원 대부분이 김제에 거주하지 않아 인구유입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산업단지 근로자가 김제에 거주하며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였고 KTX 김제역 신설은 전라북도의 문제로 확산시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JTJ 시사진단 토론회 KTX 김제역 신설문제에 대해 전라북도 문제라고 일축한 것에 대해 김제시민의 이익과 상관이 없는 전라북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고 지금이라도 광역교통망체계인 KTX 김제역 신설을 주장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현재 사조 인터그레이션의 대규모 증축 문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기룡마을 주민들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무시되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

명하며 기룡마을 주민들과 입주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병철 의원은 국도23호선과 서해안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죽산면 사포리 일원에 '하이패스 전용 새김제 나들목'을 개설하여 김제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향후 새만금 시대를 대비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의 발전과 김제시의 인구 및 관광객 유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공신력있는 용역기관에 용역 의뢰를 제안하면서 서부지역 나들목 개설을 김제시 주요정책 의제로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며 현행 인재양성과에서 자치행정과로의 업무이관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김제시 주민자치 연합조직의 구성', 주민들이 특화사업을 직접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사법비 지원방안 그리고 시장과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요청 등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주민자치체제의 정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김제=곽노태 기자

만경강유역 고고학 성과 학계 '주목'

완주군, 전주국립박물관서 학술대회 개최

완주군과 국립전주박물관이 만경강 유역의 고고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완주군은 지난 21일 국립전주박물관과 공동개최한 '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 특별전시를 기념하며, '만경강유역의 고고학적 성과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청동기학회가 주관한 것으로 박성일 완주군수와 천진기 국립전주박물관장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강연과 총 6개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은 김승욱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만경강 일대 청동기 시대와 마한문화의 전개과정'을 다뤘고, 주제발표는 천선행 전라문화유산연구원장이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전기~중기 취락

조사성과'를 한수영 호남문화재연구원 실장이 '만경강유역 청동기문화의 전개 양상', 김규정 전북문화재연구원장이 '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 문화 유입과 전개'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이어 김은정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전문연구원의 '만경강유역 원삼국~삼국시대 주거구조의 검토'와 이택구 조선문화유산연구원장의 '완주 삼윤리 마한분묘의 구조와 특징'을 김세범 영남대학교박물관 연구원의 '만경강유역 철기의 등장과 시기별 발전 양상'에 대해 발표했다.

완주군에 위치한 완주 갈동유적과 신흥유적, 수계리유적, 상윤리유적 등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한반도 금속문화의 전개와 발전 등 중요한 학술적 단서를 제시하고 있어 학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는 삼성생명전주연수소에서 2019년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선정

이서 부영·봉동 진성·한신 1차 등 18개 단지

완주군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단지로 이서 부영, 봉동 진성, 삼계 대림아파트 등 총 18개 단지가 선정됐다.

21일 완주군은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2019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단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단지 노후화에 따른 공용시설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 주민불편 해소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단지에는 옥상방수공사, 내·외부 도장공사, 주민안전 CCTV설치 공사, 저수조·고가수조 보수공사 등이 이뤄지게 된다.

총 1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군은 추경을 통해 추가예산을 확보,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선정된 단지는 이서면의 부영, 봉동읍의 진성, 한신 1차, 명진 1차, 명진

2차 주공 2차, 라송센터럴 카운티, 코아루 1차, 코아루 2차, 택시안, 신진맨션, 삼례읍의 대림, 주공1차, 우성 용진읍의 원주, 대영, 덕천하이트 상관면의 신세대 지큐빌 등이다.

앞서 완주군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전년도 지원단지를 제외한 25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고 배점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후 안전성, 시급성, 노후도, 재원부담 능력과 사업의지 등을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8개 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찾아가는 현장소통행정 펼쳐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제시는 지속적인 청년층 유출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관내 기업과 취업계 학교를 방문하는 현장소통행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11일까지 42개 기업과 취업계 고교 2개소,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를 방문했다.

김제시에서는 관내 청년층의 관내 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 중인 김제시 청년인턴사업제 등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김제시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최근 삼성생명전주연수소(금구면 소재)에서 2019년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좋은예산센터' 최승우 참여예산국장과 서울시 은평구청 조재학 협치조정관이 강사로 나서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제안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운영됐다.

올해 주민참여예산학교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권역별,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예산을 알리고자 지난 4월 12~17일 총4회 개최했고 올해 마지막 교육인 워크숍으로 진행되어 330여명이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행과 사업제안서 작성 및 평

가 등으로 진행됐으며, 서울 은평구 조재학 협치조정관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례를 통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접근 등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진행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오형걸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김제시 시정 발전을 위해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튼튼한 추춤투로써 김제시 민이 원하는 사업 및 제도가 다양하게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9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김제=곽노태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